한국영상자료원 고전영화 컬렉션

KOREAN FILM ARCHIVE
COLLECTION

서울의 지붕밑

Under the Sky of Seoul



서울의 지평선

Under the Sky of Seoul

서울의 지붕 밑

Under the Sky of Seoul

KOREAN

[새영화] 세련된 연출의 희극가작 / 「서울의 지붕 밑」(한)

근래에 드문 국산영화의 가작. 가슴이 흐뭇해지고 무리없는 웃음이 절로 터진다. 원작 · 조흔파(趙欣坡), 각색 · 김지헌, 제작 · 신상옥의 흑백「시네마스코오프」 – 한골목 안에 사는 선의의 사람들이 빚어내는 인간축도인데「코메디」속에 엷은「페이소스」를 재치있게 담아놓은 신인(?) 이형표(李亨杓) 감독의 연출솜씨는 칭송할 만하다. 일관된 「템포」와 고른 연기의 전 「캬스트」는 상영시간 2시간의 긴 시간을 「스무즈」하게 끌고 나가고…

이 작품이 제1작이라는 이형표 감독은 여태까지의 막후 제작활동에서 쌓아두었던 실력을 여기서 과시하고 있는바 능히「붸테란」이라고 할 만하다… 한의 김승호, 관상쟁이 허장강, 복덕방 주인 김희갑의 3인조를 「메인 · 멤버」로 하여 한의의 딸 최은희와 산부인과 의사 김진규 역시 한의의 아들 신영균과 술집 여주인 황정순의 딸 도금봉의 「페어」가 달고도 쓰디쓴 인생살이를 펼쳐나가는데 「스랲스틱」이지만 오락물로서의 품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김승호가 아들 부부의 결혼을 허락지 않아 신영균이 집을 나가는 대목을 비롯한 몇 군데가 엉성하기도 하지만 금년도 방화 중의 가작의 하나이다. 대부분이 공보부 「뉴스」영화에서 이미 귀에 익은「레코오드」의 효과음악은 평범하고 흰 반소매를 입은 삼복더위 노상에서의 대화(김진규 · 최은희가「시발」에서 내려 김승호와 마주서는)에 보이는「입김」은 촬영의 「미스」라고 할 수 있지만…

공연「후라이보이」구봉서, 한은진, 남미리, 고선애 등 전체적으로 높은 「토온」의 거칠고 강약의 기복없는 녹음은 낙제점 – 명보극장에서 상영중 〈英〉

조선일보 1961.12.21 석간 4면

서울의 지붕밑 (1961)



제작정보

제작사 | 신필림(신상옥)
감독 | 이형표
기획 | 황남
원작 | 조흔파
각색 | 김지헌
촬영 | 최수영
조명 | 마용천
편집 | 김영희
음악 | 정윤주
미술 | 정우택
현상 | 대영

출연

김승호 | 김학규(김장의)
허장강 | 박주사
김희갑 | 노몽현
최은희 | 김현옥
김진규 | 최두열
신영균 | 김현구
도금봉 | 점례
한은진 | 학규 처 조씨
황정순 | 점례 모
남미리 | 영자
고선애 | 찬우 모
곽규석 | 찬우
구봉서 | 설창호
신성일 | 영길

■ 제9회(1962) 아시아영화제 출품
■ 제3회 프랑크푸르트 영화제 출품

줄거리

서울 작은 골목의 터줏대감인 한의사 김학규(김승호)는 쓸데없는 심술을 부려 아내(한은진), 자식들과 불화를 겪는다. 나하나 미장원을 경영하는 젊은 미망인인 딸 김현옥(최은희)은 건너편의 산부인과 의사 최두열(김진규)과 서로 좋아지내지만, 양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김학규는 최두열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사사건건 그의 일을 방해한다. 아들 김현구(산영균)는 동네 술집 여주인(황정순)의 딸 점례와 사귀는데 점례가 임신을 해 결혼을 하려고 하나 김학규는 반대하며 아들을 쫓아낸다. 한편 관상쟁이 박주사(허장강), 복덕방 주인 노몽현(김희갑)과 유유자적하며 최두열을 방해할 궁리만 짜내던 김학규는 최두열이 시의원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입후보한다. 전 재산을 쏟아 부으며 선거에 몰두하지만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신다. 자신의 고집으로 실패를 겪은 김학규는 아들 내외를 받아들이고 딸의 결혼도 승낙한다.

이형표 (1922~)

황해도 출생. 경성사범학교와 서울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구영 감독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다 처음 영화계 입문을 권유받았다 한다. 미공보원 영화과에서 처음 영화 매체를 접한 후 공보처 소속으로 〈한국의 인상〉 등의 기록영화를 연출했다. 〈젊은 그들〉(1955)의 각색과 〈동심초〉(1957)의 촬영으로 신상옥과 인연을 맺어, 1958년 신필름에 입사했다. 1961년 신상옥이 연출한 컬러시네마스코프 〈성춘향〉의 촬영감독으로 충무로에서 입지를 굳힌 후 〈서울의 지붕밑〉으로 연출 데뷔했다. 〈말띠 여대생〉(1964) 등 상업영화 작법에 탁월한 감각을 보였던 그는 1986년 〈먼 여행 긴 터널〉까지 80여 편의 영화를 연출했다.

관객과 함께 웃는 영화 패셔니스타(Fashionista), 이형표 감독

권용숙 (한국영화사연구소 연구원)



이형표는 1960~70년대 한국영화를 수놓았던 당대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이 붙어다닌다. 1922년 황해도 출생으로 서울 효재국민학교 입학(1930), 경성사범학교에 진학(1937)하여 서울대 사범대학 영문과를 졸업(1949)했다. 미술에 재능을 보여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1943)하고 김기림, 김순남, 이인성 등으로부터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소양을 얻는다. 졸업 후, 그는 USIS(주한 미공보원 영화과)의 영화제작 보좌관으로 입사하여 미국 문화영화들의 자막번역을 맡으며 처음으로 영화를 접하게 된다.

이후 UNKRA(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서 뉴스를 비롯해 일련의 홍보영화 〈고집〉(1952), 〈한국에서의 희우〉(1952) 등의 제작에 참여한다. 〈고집〉은 임병호 기사가 촬영조수로 고용되었으며, 녹음기사로 온 미국인 종군기자 테드 코난트(Ted Conant)를 통해 처음으로 자기녹음기(마그네틱 레코더)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형표는 미국 파라마운트사가 제작한 3D 입체영화 〈휴전(Cease Fire)〉 (1953) (오원 크럼프 감독)의 통역 겸 조연출로 일하면서 남보다 먼저 헐리우드 특수영상 제작 현장을 경험한다.

일련의 활발한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시기에, 이형표가 조력자의 입장에서 창작 주체로 거듭나는 데에는 동료였던 테드 코난트의 영향이 컸다. 그는 테드 코난트와의 교류를 계기로 외교 파우치를 통해 들어온 서구 문화를 다양하게 흡수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체험을 바탕으로 공동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한다. 이는 이후 이형표의 영화 창작 세계를 구축하는 데 단단한 초석이 된다. 1953년부터 그는 대한민국 공보처 영화과에서 대한뉴스를 비롯해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기록영화 제작을 전담하게 된다. 영화 〈한국의 인상(Korean Perspective)〉(1953)과 〈낙원제주〉(1953) 등이 이형표가 직접 감독한 기록영화들이다. 〈한국의 인상〉은 한형모가 촬영을 맡았고 촬영조수로 이성휘가 참여한 것으

로 보인다.(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형표 구술채록문, 채록연구자 이순진, 참조) 이 두 작품들은 천연색 코닥크롬으로 촬영한 한국 최초의 천연색 영화로 아쉽게도 필름이 남아있지 않다. 1955년, 공보처에서 이형표가 쓴 시나리오 〈불사조의 언덕〉을 영화로 제작한다. 이 작품에는 감독 전창근, 조연출 김한일, 촬영 한형모, 조명 김흥만, 스크립터 흥은원 등 당시 한국 영화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편, 이형표는 테드 코난트와 함께 한국 전쟁고아를 다룬 다큐멘터리 〈위기에 처한 아이들(Children in Crisis)〉(1955)을 만든다. 이 작품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나레이션을 배제하고 현장음만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다이렉트 시네마(direct cinema) 형식의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리고 이형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휴먼다큐멘터리 〈한국의 미술가들〉(1955)은 1956년 제1회 마닐라 영화제 출품되어 주목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는 당시로서는 드문 다수의 제작 경험을 통해 한국영화제작기술의 열악함을 통감하고, UNKRA에서 원조를 받아내 공보처에 최초로 영화기자재를 들여온다. 이를 기반으로 스튜디오를 지어 활용하도록 하는 등, 한국영화에 서구 영화기술을 도입하는 데 큰 공헌을 한다.

1950년대 중반까지 다큐멘터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화가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하며 그림을 그리던 이형표는 신상옥 감독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극영화계에 본격 뛰어들게 된다. 신상옥은 이형표가 영화제작과정과 기술 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점을 간파하고, 그에게 1955년 〈젊은 그들〉, 1957년 〈무영탑〉의 각색과 1957년 〈동심초〉의 촬영을 맡긴다. 이윽고 이형표는 신필름 기술부장으로 입사하여, 1961년 장안의 화제였던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에서 촬영을 맡는다. 그는 이 영화에서 컬러영화 제작을 위한 기술 전반에 관여하며 직접 분장까지 맡는다. 이형표는 이미 천연색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어, 이번엔 이스트만 컬러 필름을 사용해 국내 최초로 천연색 극영화를 촬영함으로써 한국 극영화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같은 해 그는 신상옥이 제작자로 나선 〈서울의 지붕밑〉(1961)으로 감독 데뷔한다. 이 작품은 조흔파의 소설 『골목 안 사람들』을 영화화한 도시 서민극이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김승호, 김희갑, 허장강, 최은희, 도금봉, 김진규 등이 초호화 캐스팅을 이루었고, 관객과 평단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한다. 빌리 와일더나 윌리엄 와일러의 작품 세계를 동경했다는 감독의 바램대로 서민들의 애환을 가슴에 와닿는 코미디로 완성했다. "대표작이 될 것"이라는 신상옥의 예견이 적중한 것이다. 이 영화에는 독특한 구도와 새로운 카메라 기법을 이용한 서울의 다양한 풍경이 보여지는데, 각각의 쇼트들에는 화가가 되고자 했던 이형표 감독의 미적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이듬해, 그는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 〈대심청전〉(1962)에서 '미러 워크'라는 특수효과를 한국영화사상 처음으

로 시도하는 한편, 1960년대 청춘영화의 시초격인 영화 〈아름다운 수의〉(1962)를 시작으로 〈말띠 여대생〉(1963), 〈연애졸업반〉(1964), 〈백발백중〉(1966) 같은 청춘물을 내놓는다. 〈말띠 여대생〉은 영화의 리얼리즘 문제를 놓고 지면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으나, 당시 젊은층의 외화 팬을 끌어들일만한 경쾌한 템포와 시원한 전개로 흥행에 성공한다. 이어 속편 〈말띠 신부〉(김기덕, 1966), 〈말띠 며느리〉(이형표, 1979)가 제작되는 한국영화 최초의 시리즈물이 된다.

이형표는 1963년 무렵 신필름 전속을 그만두고 한양영화사, 극동흥업, 합동영화사 등을 오가며 청춘영화, 문예영화, 통속 멜로, 변장 코미디, 하이틴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상업영화를 만들며 대중과 소통한다. 〈아름다운 눈동자〉(1965)는 순박하지만 당찬 식모와 애정결핍인 주인집 아들이 훈훈한 정을 나누는 이야기로, 감독의 안정되고 세심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웃음이 터지는 박자를 놓치지 않는 센스 있는 템포와 영리한 씬 구성, 정확한 콘티뉴이티가 관객을 편안하고 즐겁게 몰입하도록 한다. 식모 역할을 맡은 엄앵란이 출산 후 컴백하여 연기생활 11년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제 3회 청룡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다.

이형표의 다방면에 걸친 박식하고 해박한 소양은 영화 기술적인 성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하는 영화 소재나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방식에도 묻어난다. 〈애하〉(1967)에서는 인공수정이라는 당시에는 낯선 소재를 삼각관계가 얽힌 미스터리한 구성으로 대담하게 전개한다. 획기적인 참신함으로 주목 받았던 이 작품은 제6회 대종상 각본상(이형우)과 남우조연상(윤일봉)을 수상한다. 또한 성(性)을 주제로 한 다수의 섹슈얼한 문예영화들 〈밤은 무서워〉(1968), 〈너의 이름은 여자〉(1969), 〈방에 불을 꺼주오〉(1970) 등을 통해 젊은 남녀의 내밀한 심리 세계를 긴장감 있게 표현한다.

일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거추장스럽게 여긴 이형표 감독의 자유로운 사고 방식은 그의 주특기 장르인 코미디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심술각하〉(1966), 〈산에 가야 범을 잡지〉(1969), 〈내 것이 더 좋아〉(1969), 〈방자와 향단이〉(1972), 〈맹물로 가는 자동차〉(1974), 〈염통에 털난 사나이〉(1979) 등의 작품들에서 그는 세태풍자와 함께 권위를 조롱한다. 그리고 웃음에 대해 야박하고 저급하다고 폄하하는 기존의 시선을 가볍게 뛰어넘어 슬랩스틱 코미디까지 자유자재로 시도한다. 특히, 서영춘을 기용해 여러 작품을 만들었던 이형표는 당시 그의 뛰어난 희극 배우로서의 재능이 높이 평가받지 못했던 점을 안타까워했다.

1970년대 TV 보급시대에도 이형표는 누구보다 빨리 변화하는 관객의 감성에 적응해갔으며, 당대 인기 배우들을 기용한 그의 청춘영화들은 꾸준히 인기를 누렸다. "이형표 감독을 잡으면 돈을 번다"는 말이 당시 제작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이형표는 경제

성 있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대중이나 제작자 모두가 요구하는 탁월한 상업영화 감각을 유지했다. 이는 그가 영화는 오락이고 유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유행에 맞춰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유연함을 스스로 즐길 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80년대 한국영화 침체기에도, 이형표는 성룡의 〈취권〉(1978)을 패러디한 코미디물 〈애권〉(1980)을 흥행시키며, 〈여애권〉(1982), 〈애권(신)〉(1982), 〈소애권〉(1983) 등의 속편을 연달아 연출한다. 그는 80년대 계속되는 저예산 흥행영화 제작 와중에,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일상서민극 〈젊은 시계탑〉(1984)을 추가한다. 이형표는 1986년 작품 〈먼 여행 긴 터널〉을 끝으로 극영화 연출 활동을 마치고, 국내 최초의 360도 서클 비전 영화 〈내 사랑 금수강산〉(1990)을 제작하여 전시영상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 이후 몇 년간 전시영상분야에서 새로운 영상에 대한 끊임없는 개척정신을 보이는 활동을 이어갔다.

이형표의 영화 인생은 한국영화 발전사와 궤적을 같이한다. 한국영화의 영화기술도입 및 활용에 있어 선구자적 안내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60년대 한국영화 전성기뿐만 아니라 19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변모하는 세태에 뒤쳐지지 않고, 항상 새롭게 대중의 감수성을 포착해내고 섭취하는 감독이었다. 이형표는 예술가라는 자의식을 발현하기보다는, 영화를 잘 이해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영화 만들기를 추구했다. 그는 영화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며, 자신만의 확실한 개성을 지켜나갔다. 근래 영화제에서 종종 〈관 속의 드라큐라〉(1982), 〈아가씨 참으세요〉(1981), 〈서울의 지붕밑〉(1961) 등의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는 것은, 그의 작품들이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변치않는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장르에서 편협한 시각을 벗어내고, 참신한 오락을 추구했던 이형표의 영화세계를 보다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서울의 지붕 밑〉 작품 해설

이영미 (대중예술연구자)





1961년 이형표 감독의 〈서울의 지붕 밑〉은 첫 연출 등단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놀랍도록 능란하고 깔끔하다. 조흔파 원작 소설(〈골목안 사람들〉)의 잘 짜인 희극적 구도와 김지헌의 균형 잡힌 시나리오의 힘이 적지 않았겠지만, 코미디가 갖추어야 하는 경쾌한 속도감과 호흡에, 가족물로서의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갖추고, 여기에 1960년대 서울 서민들이 살아가는 풍경과 생활감각을 마치 풍속사가처럼 속속들이 잡아내는 능력은, 첫 연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이는 이형표 감독이 1950년대 상당한 시간 동안 기록영화를 제작하고 신상옥 감독과 호흡을 맞추어 여러 편의 극영화를 완성시켜 본 경험으로서만 설명 가능할 것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직접 카메라를 잡았고 안정되면서도 세련된 카메라워크를 보여준다. 즉 샹송 제목을 연상시키는 '서울의 지붕 밑'이라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베잠방이 입은 영감님들과 한옥집 가겟방을 비추고 있지만 이를 잡아내는 시선과 솜씨는 매우 서양적인 세련됨을 과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형표 감독의 대표작이 되었고, 이형표는 그해 연말 영화인 4명이 '이 해의 베스트'를 뽑는 설문에서 4명 모두에게 '유망한 신인 감독'으로 꼽히면서 급부상하게 된다.(경향신문, 1961.12.28)

이 작품의 핵심 화두는 서울의 서민, 가족, 코미디로, 이 점에서 1960년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와 1961년 이봉래 감독의 〈삼등과장〉의 뒤를 잇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1960년대 초반 한국 영화의 중요한 경향인, 가부장 중심의 가족의 재건을 보여준 전형적인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쟁과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가부장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로맨스 빠빠〉, 〈삼등과장〉에서 〈로맨스 그레이〉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이 코미디적 접근을 한 작품이라면, 〈박서방〉과 〈마부〉는 비교적 진지한 접근을 강화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작품의 중심에는 흔들리는 아버지 김승호가 있다. 김승호는 바로 이들 작품을 통해 한국인의 아버지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잃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가끔 주책스럽거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망신도 당하고 가산을 들어먹기도 하는 무능한 아버지이며 완고하여 자식들과 충돌하는 아버지이지만, 착하고 순박하고 성실한 가장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며, 종종 너무도 불쌍하고 그래서 사랑스럽기까지 한 아버지의 인물형을 김승호는 탁월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나 〈로맨스 빠빠〉나 〈삼등과장〉의 아버지가 근대화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이고 그 가정의 풍경 역시 한식과 양식이 절충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의 지붕 밑〉의 아버지는 사그라져가는 직업인 한의사로 한옥에 살고 있다. 대신 그와 대립하는 맞은편 양옥집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 최박사를 대립축으로 설정하여 희극적 대립 구도를 만들며 신구(新舊), 혹은 전근대와 근대, 한국과 서양이라는 대립 속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 작품처럼 한 마을에(혹은 친구지간에) '한옥집'과 '양옥집' 으로 맞서, 양쪽의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패턴을 충돌시키는 방식의 코미디는, 이후 1960, 70년대의 방송극과 명랑만화 등을 거쳐 급기야 1992년 김수현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이 구도야말로 한국의 근대화 · 산업화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코미디 구도라고 할 만하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이러한 구도의 작품에서는 대개 '한옥집'이 승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양옥집 쪽을 서양적 근대화의 바람에 부박하게 요동치는 인물들로, 그에 비해 한옥집 쪽은 품격과 지혜를 갖춘 보수적 인물들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빠르게 진척되는 서양적 근대화의 압도적인 힘과 그와 함께 발생하는 빈부격차나 문화적 갈등 등으로 불안해하는 대중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5·16 정권이 시작되어 근대적 산업화와 그로 인한 경제부흥에 대한 기대가 솟아오르던 시기의 〈서울의 지붕 밑〉은 다르다. 이 작품의 양옥집에는 어른이 없으며, 젊은 최박사(김진규)는 한옥집 한의사의 딸인 전쟁미망인(최은희)과 연인 사이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한옥집'과 '양옥집' 의 갈등은 구세대와 신세대라는 세대갈등의 의미까지 포함하게 된다. 게다가 서양적 근대성을 몸으로 구현하는 젊은 최박사는 아직 가족들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사는 일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일상 속에서 그러한 서양적 근대성이 일으키는 문제 역시 만들어내지 않는다. 대신 최박사는 높은 수준의 신교육을 받고 서양의 과학을 다루는 인물이다. 그에 비해 한의사 영감은, 고집불통의 태도로 아들딸의 연애에 반대하며, 최박사 때문에 자신의 한의원이 망해간다고 생각하여 최박사를 괴롭히고, 급기야 최박사가 시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출마를 결정했다가 집안을 빚더미에 올려놓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양옥집'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이는 서양적 근대성, 서양과학, 젊은 세대의 승리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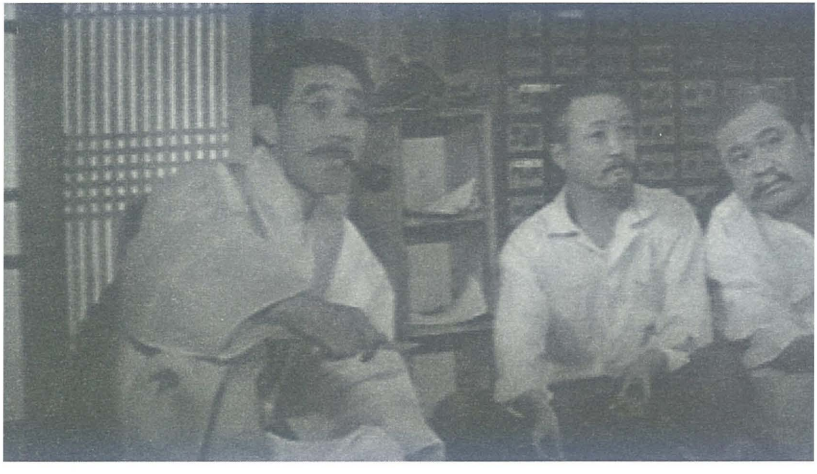
1960년대 한국사회의 서양적 근대화에 대한 강한 욕망, 특히 당시 대도시의 젊은 지식층들이 지니고 있던 욕망과 일치하며, 산업화와 경제부흥을 주창한 정권의 방향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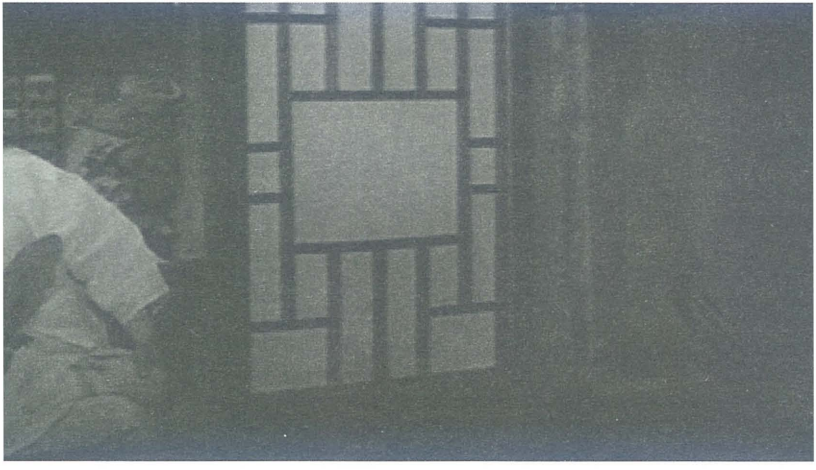
전근대적인 낡은 한옥집 같은 아버지 세대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수습하는 방식은 매우 화해롭다. 최박사는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한의사 영감에게 절대로 맞서지 않으며 심지어 장래의 장인과 맞설 수 없다며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결국 선거에 져서 쫄딱 망한 한의사 영감이 가출하여 사고를 당하자, 그의 빚은 대신 갚아주고 치료까지 해준다. 신교육을 받은 품격 있는 젊은 의사의 이해심과 사려 깊은 태도, 어른에 대한 공경심으로, '양옥집'과 '한옥집'을 포용하며 새롭게 가족을 재건한다. 이쯤 되면 현실에서는 세대교체가 분명히 드러나겠으나, 작품에서 아버지는 몰락이 아니라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그려진다. 젊은 층이 견인하여 서양적 근대성으로 나아가기는 하되 전통적 가부장(혹은 남성 가장 일반)의 권위는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온존하며 가족을 재건하는 방식은, 1960년대 초의 이른바 바람직한 '건전함'의 표준이 무엇이었던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품이 밉지 않은 것은, 아마 한의사 영감을 비롯한 서민 인물들의 소소한 욕망과 다소 유치한 행태가, 매우 개연성 있으면서도 밉지 않게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당시 대중들의 자신의 모습, 혹은 자신의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며, 이를 불필요한 자학이나 자괴감을 섞지 않고 해학의 시선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자신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그럭저럭 되찾는 시대였다는 의미일 수 있다. 혁명과 쿠데타를 정신없이 치르고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는, 전쟁의 상처가 조금 가라앉아 도시의 서민생활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였으며, 1950년대와는 달리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었던 시대였다. 아직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드라이브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킬지, 아니 그토록 원하던 서양적 근대화와 산업사회가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기였다. 1960년대 초 대중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희망'은 정권의 요구이기도 했지만, 당대 대중들의 동의와 바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 희극의 구도를 짜는 방식은 매우 능란하여, '한옥집'과 '양옥집'의 큰 갈등 외에도, 한의사 영감과 그 친구들인 관상쟁이(허장강), 복덕방 영감(김희갑) 삼총사가 벌이는 자잘한 희극적 삽화들이 작품의 굵은 갈등 축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 특히 궁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달라고 세 명에게 각기 뒷돈을 받은 관상쟁이 에피소드는 속임수와 탄로, 오해 등 전형적인 희극적 구도로 잘 짜여 있다. 물론 무대에서 훈련을 하고 영화로 투입되어 이제 한창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능란한 중견 배우들, 김승호, 허장강, 김희갑, 한은진, 황정순, 김진규, 최은희, 신영균, 도금봉 등의 안정된 연기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에 1960, 70년대의 최고 스타인 신성일과, 최고 코미디언인 구봉서, 곽규석의 조연 연기 역시 흥미로운 볼거리이다.

1960년대 초 서민들의 가족을 다룬 영화가 대개 그러하듯, 영화에 담긴 서울 풍경은 어느 다큐멘터리보다는 생생하고 뛰어나다. 감독은 타이틀 화면에서부터, 부감으로 한옥촌, 부흥부 건물, 시내의 교차로, 빌딩 등 서울의 여러 풍경들을 비춰주고 있다. 지금은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종로구 북촌의 일부에서나 볼 수 있는 다닥다닥 붙은 'ㅁ'자 한옥집과 가겟방들, 복덕방과 관상쟁이의 공간, 전파상에 울려 퍼지는 현인의 「베사메무쵸」, 허름한 술집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고전영화 컬렉션

KOREAN FILM ARCHIVE
COLLECTION

서울의 지붕밑

Under the Sky of Seoul



서울의 지붕밑

Under the Sky of Seoul

ENGLISH

[New Cinema] A Good Comedy with Refined Directing / *Under the Sky of Seoul* (Korean)

This film is a rare and well-crafted Korean gem. It brings delight to audiences with its lighthearted, natural humor. Shot in black & white cinemascope, it was adapted by screenwriter Kim Ji-heon from the original novel by Cho Heun-pa, and produced by Shin Sang-ok. A new director at the time, Lee Hyeong-pyo's work was acclaimed for its amusing structure of light pathos in this comedy about good neighbors in an alley. A stable pace and fair acting by the entire cast carry the 2 hour running time smoothly.

With this, his debut work, Lee Hyeong-pyo displays a great talent in this film, promising much to look forward to in his subsequent productions. We can call him a veteran already. The film has three main characters, Kim Seung-ho, playing a Korean traditional doctor, Heo Jang-gang, as a physiognomist and Kim Hee-gap, as the owner of a real estate agency. There are two couples; Choi Eun-hee, playing the daughter of the doctor and Kim Jin-kyu as an obstetrician; Shin Young-kyun plays the son of the doctor and Doh Geum-bong is the daughter of a bar owner, played by Hwang Jeong-soon. They lead sweet and bitter lives as their stories entwine in this film. Though a slapstick comedy, the film entertains gracefully. There are a few scenes which look loose when Kim Seung-ho does not allow his son, Shin Young-kyun to marry the girl, so Shin leaves the house. But this film is still one of the best Korean films. Much of the music on the soundtrack is familiar to us from records of the newsreels of the Information Service. Moreover, there is an amusing mistake in this film: during a dialogue scene between two persons, we see their cold breath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in white short sleeves in hot summer. It happens when Kim Jin-kyu and Choi Eun-hee get out of the first taxi to face Kim Seung-ho.

Gu Bong-seo the Flying Boy, Han Eun-jin, Nam Mi-ri, Go Seon-ae and others act in this film. The high tones of sounds and rough recording without ups and downs is unsatisfactory. - Now showing at Myeong-bo Theater. Written by reporter, Young

Chosun Ilbo, the Evening Edition, December 21, 1961, p. 4

Under the Sky of Seoul (1961)



Production Notes

Production Company: Shin Films (Shin Sang-ok)
Director: Lee Hyeong-pyo
Planning: Hwang Nam
Original Novel: Cho Heun-pa
Adaptation: Kim Ji-heon
Cinematographer: Choi Soo-young
Gaffer: My Yong-cheon
Editor: Kim Young-hee
Music: Jeong Yoon-joo
Art Director: Jeong Woo-taek
Developing: Daeyoung

Cast

Kim Seung-ho | Kim Hak-kyu (Kim Jang-eui)
Heo Jang-gang | Park Ju-sa
Kim Hee-gap | Rho Mong-hyun
Choi Eun-hee | Kim Hyeon-ok
Kim Jin-kyu | Choi Doo-yeol
Shin Young-kyun | Kim Hyun-gu
Do Keum-bong | Jeom-rye
Han Eun-jin | Hak-kyu's wife, Ms. Cho
Hwang Jeong-soon | Jeom-rye's mother
Nam Mi-ri | Young-ja
Goh Seon-ae | Chan-woo's mother
Kwak Kyu-seok | Chan-woo
Gu Bong-seo | Seol Chang-ho
Shin Sung-il | Young-gil

- Invited to the 9th Asian Film Festival (1962)
- Invited to the 3rd Frankfurt Film Festival

Synopsis

A Korean traditional doctor, Kim Hak-kyu (starring Kim Seung-ho), the elder member of a village in Seoul, makes family trouble with his wife (Han Eun-jin) and children due to his bad temper. Kim Hyeon-ok (Choi Eun-hee), his widowed daughter who runs the Nahana Beauty Salon and Choi Doo-yeol (Kim Jin-kyu), an obstetrician, are fond of each other. However, Kim Hak-kyu is deeply displeased because he looks down upon Western medicine and feels jealous of Choi Doo-yeol. Kim always disturbs Choi's work. Kim's son, Kim Hyeon-gu (Shin Young-kyun) goes out with Jeom-rye, the daughter of a bar owner (Hwang Jeong-soon). One day Jeom-rye gets pregnant so they decide to get married. Kim Hak-kyu expels his son fiercely objecting to the marriage.
In the meantime, Kim and his old friends, Park Joo-sa (Heo Jang-gang), and Roh Mong-hyeon (Kim Hee-gap), the owner of a small real estate agency, conspire on how to disturb Dr. Choi. When Kim finds out that Choi will run for the City Assembly, Kim decides to run himself as well. But he is defeated in the election. Crestfallen, he is softened by his daughter and his son, and allows his daughter to marry the young doctor.

About the Director : Lee Hyeong-pyo(1922~)

Lee Hyeong-pyo was born in Hwang-hae province. After graduating from Kyung Sung Normal School, Lee majored in English, at the college of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he was tutoring at director Lee Gu-young's house, Lee was asked to enter the film world. Lee watched films in the film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for the first time, and then directed a documentary called Impression of Korea produced by the Information Service. Writing the screenplay adaptation of *The Youth* (1955) and shooting *Dongsimcho* (1957), Lee became associated with director Shin Sang-ok and entered Shin Films. After building up his reputation at Chungmuro as a cinematographer with Seong Chun-hyang in 1961, Lee made his debut as a director with *Under the Sky of Seoul*. Displaying a strong sense for popular commercial films such as *Women of Spirit* (1964), Lee directed about 80 films until *A Long Journey, A Long Tunnel* in 1986.

Director Lee Hyeong-pyo, the Film Fashionista who laughs with viewers

Kwon Yong-sook (Researcher, Korean Film Institute)



Lee Hyeong-pyo was the most successful and best director during the 1960s and 70s in Korean film history. His middle name was the 'first.' He was born at Hwang-hae province in 1922. He entered Hyo-jae Elementary School in 1930, Kyung Sung Normal School in 1937 and graduated from the English department of the college of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49. He was good at drawing, so his painting was selected at the Chosun Art Exhibition in 1943, and he learned culture and general arts from poet Kim Ki-rim, Kim Soon-nam and Lee In-seong. After graduating, he started to work at USIS (the film department of the US Information Service) as a translating aide for subtitles on U.S. cultural films, leading to his first contact with the film industry.

From then on, he began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of newsreels and a series of publicity films such as *Obstinacy* (1952) and *A Welcome Rain in Korea* (1952) at UNKRA. He worked with Lim Byeong-ho, who was a cinematography assistant for *Obstinacy*, and Ted Conant, an American war correspondent, who was the recording engineer, bringing over a magnetic recorder to Korea for the first time. Moreover, as an interpreter and assistant director for *Cease Fire* (1953) directed by Owen Crump, a 3D film by Paramount Pictures, Lee experienced the special effects of Hollywood production earlier than anyone else in Korea.

When he actively participated in documentary productions, his work with Ted Conant had a big influence on Lee guiding him towards becoming a creative filmmaker. With this opportunity for cultural exchange with Ted Conant, he became absorbed in various aspects of Western cultures through diplomatic pouches, and started collaborative documentary works based on cosmopolitan cultural experiences. This would become a powerful cornerstone in constructing Lee's filmmaking world later on. By 1953, he had taken full charge of documentary filmmaking sponsored by the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including newsreels. *Korean Perspective* (1953), *Jeju, Paradise Island* (1953) and others were directed by Lee Hyeong-pyo. Han Hyeong-mo was a cinematographer and Lee Seong-hui worked as an assistant cinematographer for Korean Perspective according to an oral statement by Lee Hyeong-pyo recorded by the Arts Council Korea in 2005 as researched by Lee Soon-jin. These two films were the first ones shot in color Kodachrome, but neither survive now unfortunately. The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produced *The Hill of an Immortal Bird* scripted by Lee Hyeong-pyo in 1955. This film was directed by Jeon Chang-geun; the assistant director was Kim Han-il; the cinematographer was Han Hyeong-mo; the gaffer was Kim Heung-man; the scripter was Hong Eun-won and a number of Korean filmmakers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Meanwhile, Lee Hyeong-pyo along with Ted Conant produced a documentary entitled *Children in Crisis* in 1955, which deals with Korean orphans after the Korean War. In this film, he made a new attempt at direct cinema, which delivers situations only using real sound from recorders without narration. They also made a documentary entitled *Korean Fine Artists* (1955) with Lee himself as a main character. It was invited to the 1st Manila Film Festival in 1956 and acclaimed for its directing. Likewise, he went through a great number of producing operations, which was very rare at that time, when he fully realized the inferiority of the techniques employed in Korean filmmaking. He finally received some aide,

first in the form of filmmaking equipment from UNKRA for the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With the help of this equipment, he applied it and Western practices in the constructing of a studio and made a huge contribution to bringing Western film techniques into Korean cinema.

Until the mid 1950s, Lee had produced documentaries and held on to his identity as a painter. Lee started to create feature films after he developed a relationship with director Shin Sang-ok. When Shin Sang-ok found out that Lee had a wide r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lmmaking process, he placed him in charge of adapting *The Youth* in 1955, *The Pagoda of No-Shadow* in 1957, and as director of photography for Dongsimcho in 1957. Before long, Lee Hyeong-pyo entered Shin Films as a technique manager and took charge of cinematography for *Seong Choon-hyang* directed by Shin Sang-ok, which was a big hit in 1961. Lee was fully in charge of the general techniques for color film production and even actors' make-up for this film. He had already experienced producing color documentaries, so could establish a new milestone for Korean feature films as he shot with Eastman color fil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at year, he made his debut with *Under the Sky of Seoul* (1961) produced by Shin Sang-ok. This urban drama of ordinary people is based on the original novel *People of the Alley* written by Cho Heun-pa. The most popular actors of the time such as Kim Seung-ho, Kim Hee-gap, Heo Jang-gang, Choi Eun-hee, Doh Keum-bong, Kim Jin-kyu and other starred in this film, and it became successful making a big hit at the box office. It was acclaimed by critics as well. As Lee mentioned that he had admired American director Billy Wilder, he designed this film as a sympathetic comedy about ordinary people. Shin's prediction was exactly right when he said this film would 'become Lee's masterpiece.' This film shows various landscapes of Seoul with particular angles and new camera techniques. Each shot displays the

aesthetics of Lee who wanted to become a painter. Next year, he made his first attempt at a special effect called 'mirror walk' in *The Great Story of Shim Cheong* (1962), a color cinemascope film. Moreover, he started youth films in the 1960s; a so-called first youth film, *Beautiful Shroud* (1962), *College Girls In the Year of the Horse* (1963), and *It Never Misses the Mark* (1966). *College Girls In the Year of the Horse* stirred up controversy around the issue of cinematic realism, but was successful for its light tempo and cool development which could attract the new generation of foreign film lovers. This film became the first Korean sequel film as two follow ups were released: *A Bride in the Year of the Horse* directed by Kim Ki-duk in 1966 and *A Daughter in law in the Year of the Horse* directed by Lee Hyeong-pyo in 1979. Lee Hyeong-pyo produced a variety of genre films including youth films, literary films, popular melodramas, comedies and teenager films at Hanyang Film Production, Keukdong Enterprise and Hapdong Film Company, after he quit working at Shin Films around 1963, so that he could communicate to the masses. *The Beautiful Eyes* (1965) delivers the story of a pure but solid maid and a deprived son of the landlord who come to share affections. It reveals the delicate touch and stable directing of the director. Lee's sense of directing rhythms of laughter, clever mise-en-scenes, and precise continuity makes the viewers comfortable and pleasant allowing them to be absorbed into the film. The star, Uhm Aeng-ran as the maid, showed her passion to record with her own voice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making her comeback after leaving the industry to give birth. She won the Best Actress prize at the 3rd Blue Dragon Film Awards.

Lee Hyeong-pyo's wide and erudite attainments in diverse areas were not only present in his use of film technology, but in the way he developed stories or film materials he selected. In *River of Love* (1967), Lee baldly develops a

mysterious triangle plot using the strange subject material called artificial insemination at that time. Well-known for its novelty, this film won the Best Screenplay for Lee Hyeong-woo and the Best Supporting Actor for Yoon Il-bong at the 6th Daejong Film Awards. Lee expressed the psychology of young men and women with tension in such erotically charged literary films as *Fearful Night* (1968), *Your Name is Woman* (1969), *Turn Off the Light in the Room* (1970) which dealt with sexual issues.

Since Lee did not like prejudice and stereotypes, his liberal thoughts were expressed more in comedy, which is his major genre. He laughed at authority using social situational satire in the following films; *The Vicious President* (1966), *No Ventures No Gains* (1969), *I Like Mine More* (1969), *Bangja and Hyang-dan* (1972), *A Car Moves by Water* (1974) and *Cheeky Man* (1979). He goes beyond the existing perspectives that laughter is vulgar and that belittle comedies. He tries slapstick comedy freely. In particular, Lee employed Seo Young-chun in many films, and was sorry for him that Seo could not get acclaimed for his talent as a comedy actor.

Even in the 1970s when TVs had come into wide use, Lee was able to adapt himself to the sentiments of the viewers who changed so rapidly. His youth films with contemporary star actors were constantly popular. "Once you work with Lee, you can make money," producers at the time often said. Lee, as a filmmaker who maintained his sense of commercial filmmaking to make money, was everything the masses and producers wanted. This was possible because he believed that the film is an entertainment and a trend, so he should follow audiences according to the trend and knew how to enjoy the flexibility in these interchanges with them.

Even during the dead season of Korean cinema in the 1980s, Lee Hyeong-pyo made a box office success with *A Martial Art Named Ae-kwon* (1980), which was a parody comedy of *Drunk Monkey* by Jacky Chan. He directed sequels

to *Ae-kwon* entitled *Woman's Martial Arts* (1982), *New Martial Arts* (1982), and *Little Ae-kwon* (1983) later on. Along with his low budget successful film productions in the 1980s, he added *Young Clock Tower* (1984), a drama for ordinary people, which presents the joys and sorrows of laborers at the Guro Factory Complex. Lee finished feature filmmaking after producing *A Long Journey, A Long Tunnel* in 1986. He moved to the vanguard of a new area of exhibition screening with the production *My Love, My Country* (1990), a circle vision film shot and screened in 360 degre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For a few years, he continued his frontier work claiming new images in exhibition visual art.

The filmography of Lee Hyeong-pyo go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film history.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Korean film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And he was never left behind in the changing social conditions from the 1960s to 70s and 80s. He always caught up with the sentiments of the public and absorbed them. Lee did not show off his self-consciousness as an artist, but pursued pleasant filmmaking as a film lover who understood, liked and enjoyed films. He argued that films should become an entertaining art. He made his own solid features according to that principle. Recently, film festivals are screening *Dracula in a Coffin* (1982), *Miss, Please Be Patient* (1981), *Under the Sky of Seoul* (1961), which proves that Lee's films still have that vital power to bring fun and laughter to the viewers. He escaped from narrow perspectives through diverse genres, and sought for renewed entertainment. I hope you enjoy the broad world of Lee's films.

Understanding *Under the Sky of Seoul*

Lee Young-mi (Researcher of Popular Arts)





Under the Sky of Seoul by Lee Hyeong-pyo was produced in 1961 and shows such skillful and assured directing that it is surprising to say that it was Lee's debut film. The film is bolstered by a well-balanced screenplay by Kim Ji-heon, based on a neatly-woven theatrical plot adapted from the original novel 'People of the Alley' by Cho Heun-pa. Moreover, director Lee creates an upbeat, cheerful pace, filled with rhythms of comedy, tenderness and the stability of a home drama, while catching the pulse of the urban landscape and the sense of life of ordinary people living in Seoul in the 1960s, as if he were an ethnographer. With all this in mind, it is incredible that this film is his directing debut. In explan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director Lee Hyeong-pyo had produced documentaries for a long time in the 1950s and had the experience to complete a number of feature films with director Shin Sang-ok. As a director of photography, he shot films handling the camera without assistance, and revealed his refined and stable camera movements. As you may feel from the title of this film, *Under the Sky of Seoul* reminds one of a chanson, and there are lyrical images of old men in farmers' knee breeches and a store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 The camera captures these scenes with what, at the time, were considered very western and refined skills. This film became famous with critics and audiences alike that year and quickly established director Lee Hyeong-pyo. Four filmmakers selected Lee

as the 'Promising New Director' in the survey of 'This Year's Best.' (Kyunghyang Newspaper, December 28, 1961)

The main themes and focuses of this film are the common people of Seoul, family and comedy. In this sense, it is a follow up to *A Romantic Papa* by Shin Sang-ok in 1960 and *A Petty Middle Manager* by Lee Bong-rae in 1961. Therefore, *Under the Sky of Seoul* is one of the typical films which present the theme of the reestablishment of family with a patriarch, an important tendency in the Korean cinema of the early 1960s. In other words, it is a story in which crises are resolved in final family harmony with the father at the center who is loved and helped by other members of the family, redeeming him following the unstable conditions for a patriarch after all the radical social changes that came with war and its aftermath. There were a series of comedies including *A Romantic Papa, A Petty Middle Manager* and *Romance Grey*; while *Mr. Park* and *A Coachman* present stronger, more serious approaches to the theme.

In the midst of many of these films, there is an unstable father played by Kim Seung-ho. Kim takes on this role in so many films that he could be considered the archetypal father of Korea. Losing his job, unable to escape from his poverty, being wishy-washy, foolish and humiliated, squandering family assets, he was an incompetent, bumbling father every time. Kim Seung-ho masterfully creates the character of a father who sometimes has conflicts with his children, but loves his family as a diligent, good and naïve father would - he's too pathetic and thus lovable.

Compared with the father in *A Romantic Papa* and *A Petty Middle Manager* who works at a modernized company and lives in a house that contains both Korean and Western styles, the father in *Under the Sky of Seoul* is a Korean traditional doctor living in a Korean style house. His counterpart is Dr. Choi, a young obstetrician living in a Western-style hous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street from Kim's house. This comic composition of these counterparts maintains a balance ou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new and the old, the pre-modern and the modern, and the Korean and the Western mode of life.

Likewise, this kind of comedy with its oppositional framing of a 'Korean-style house' and a 'Western-style house' in a close village or among friends, which generates dramatic conflicts and various perspectives on lifestyles, continued to be used up into the '90s with a popular TV drama entitled, *What is Love?* written by Kim Soo-hyun in 1992 following on all the TV soap operas and comics in the 1960s and 70s. That is why this oppositional composition could be called a very critical recurring plot in comedies throughout the entire era of Korean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rom the middle and late 1960s till the early 1980s, the films with this kind of plot mostly let the 'Korean-style house' win. That is to say, such films describe the characters living in a Western-style house as frivolous ones caught up in the boom of Western modernization; while they picture the members of a Korean-style house as conservative characters with grace and wisdom. These films offer psychological consolation to the masses who feel insecure in the cultural conflicts and the gaps between haves and have-nots that came with the overwhelming power of rapid Western modernization.

Under the Sky of Seoul, however, seems different from these films, since it was produced when the hope of modern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rehabilitation increased after the beginning of Park's regime in the early 1960s. There lives no elder in the Western-style house, and young doctor Choi (starring Kim Jin-kyu) who lives there, is the lover of a war widow (starring Choi Eun-hee), the daughter of the Korean traditional doctor of the Korean-style house. Therefore, the conflict between 'a Korean style house' and 'a Western-style house' in this film includes the generation gap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Moreover, the young doctor Choi who embodies western

modernization does not have the daily nuisances of an annoyed life with his family. Thus, the Western modernity in his daily life does not create any problems for him. Instead, Dr. Choi is described as a man who has received a modern education on a higher plane and deals with western science. Compared with fair-minded Choi, old Korean traditional doctor Kim obstinately objects to the loves of both his son and daughter, worried that his Oriental medical clinic will collapse due to Dr. Choi, and he slyly runs for the City Assembly as well when he finds out Dr. Choi is running; yet Kim finally loses the election. Therefore, it is shown as natural that the 'Western-style house' wins in this film. This is a triumph of western modernity, western science and the younger generation, which corresponds with the desires of the young intellectual class in a metropolitan city at that time. It is also the direction the government was moving in, promoting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rehabilitation.

Although the film presents as natural the collapse of the fathers' generation in old and pre-modern Korean-style houses, the way of coping with it is very amicable. Dr. Choi never makes trouble with this old Korean traditional doctor who hates and bothers him, and even gives up running for the City Assembly, reasoning that he cannot compete with his future father-in-law. This old man is involved in an accident after he loses the election having squandered all his money on it, when Dr. Choi decides to pay back Kim's debts and offers medical treatment. This young and graceful doctor with his modern education has sympathy and a considerate attitude towards his less-fortunate elders, and reestablishes a renewed family that bridges the Western-style house and the Korean-style house. Likewise, the film certainly shows the shift in generations going on in reality at the time, but the father in this film is pictured as one who regains stability, not one who collapses. The film clearly favors Western modernity led by the young generation, but does

not break down the authority of traditional patriarchs (or the general male family head) instead reconstructing the family system. This explicitly shows what the standard of desirable 'soundness' was in the early 1960s.

Though this film is conservative, it does not look negative because the film presents a convincing portrait of the trivial desires and childish behavior of its characters, drawing from ordinary life, as with the Korean traditional doctor, with a sense of high likelihood and great humor. This is a picture of the populace at the time, and a picture of our parents' generation as well. Filming it with lighthearted humor and without unnecessary self-torture or self-destruction conveys a sense of how the time was for resuming affection and hope for ordinary people. Ordinary people were able to rebuild an urban lifestyle in this new era after they went through the democratic revolution and the sudden military coup by President Park after the Korean War. The 1960s was the time for hope which many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1950s. They could hardly imagine what huge side effects the industrialization drive by the nation might give rise to, or in what way Western modernization and the industrialized society they had high hopes in, would change people at that time. Though the 'hope' which appeared in most artistic fields in the early 1960s was a demand by the government, it was also an agreement and desire of the masses at that time.

In this film, the director is very skillful in crafting a comedy plot. Besides the big conflict between a 'Korean style house' and a 'Western style house', the tiny comic episodes of the town triumvirates strongly support the main conflict in the film; the three include the old Korean traditional doctor and two of his friends, a phrenologist (played by Heo Jang-gang) and an owner of a real estate agency (Kim Hee-gap). In particular, there is one such episode in which the phrenologist receives off-the-books money from three characters who want him to read their marital harmony the way they want it read. It is a

well-composed episode with a typical comedy plot replete with tricks, unwarranted disclosures and misunderstandings. Without doubt, the solid performances of the skillful cast, drawing on all the disciplined training from their stage acting days, also gave life and dimension to the plot; actors such as Kim Seung-ho, Heo Jang-gang, Kim Hee-gap, Han Eun-jin, Hwang Jeong-soon, Kim Jin-kyu, Choi Eun-hee, Shin Young-kyun and Doh Keum-bong. Besides them, you can discover the exciting spectacle of the acting by Shin Seong-il, the most talented star of the 1960s and 70s, Goo Bong-seo, the best comedian, and Kwak Kyoo-seok, one of the supporting actors.

Such as with most home dramas about ordinary families in the early 1960s, the landscape of Seoul at the time is intriguing to watch, and in this film it is more vivid and outstanding than a documentary. The director shows different places in Seoul including the Korean traditional village, the building of the Ministry of Rehabilitation, the major crossroads of downtown and buildings, starting with the title sequence where it presents a bird's eye view. It is quite fun to watch the traditional houses shaped like a square that now you can find only at the Hanok Village in Jeonju or at Buk-chon, Jong-ro, Seoul. It captures the real local flavor with stores, the real estate agency, the room for the phrenologist and some humble bars in the alley, with the sounds of 'Besame Mucho' sung by a singer named Hyeon In coming from an electric appliance and filling the air.

Translated by Sue Kim
Revised by DSA NIGEL SAVIO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